日노승, 인도불교 부흥 이끌다

30만 불가촉천민 개종시킨 사사이 슈레이 스님

색욕 강해 세 차례 자살 시도
인도 여행 중 '남인도 가라'는
용수 보살 계시 받고 남인도行
그곳서 불가촉천민 전도 결심
30만명 불법 전도하며 큰 반향
"나는 천민과 인도불교의 노예"

박영빈 객원기자

힌두교가 최대의 종교인 인도. 반세기 전엔 불과 수 십만 명이던 불교도가 이제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불교 부흥의 중심에 한 일본인 스님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1월 14일 일본의 '분슌 온라인'은 기이한 삶을 살며 인도불교 부흥에 힘써온 사사이 슈레이(84) 스님을 특별 보도했다.

슈레이 스님은 1935년 일본의 오카야마현에서 태어났다. 스스로를 "엄청난 호색한"으로 청년기를 회상한 스님은 "이상하게 이성에 대한 흥미가 강했다. 결국 이러한 색욕에 절망하여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스님은 "자살시도로 쓰러져 있던 것을 한 스님이 구해주신 것을 계기로 출가자가 됐다"며 출가 사정을 말했다.

이후 스님은 태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태국에서조차 치정관계에 놀였다. 출자가로서 수치심을 느껴 도망치듯 인도로 떠나 왔다. 이것이 32세 때의 일"이라며 인도로 온 계기를 설명했다.

인도로 건너온 스님은 옛 왕사성 유적이 있는 라즈기르에서 수행하며 일본으로 귀국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신비한 꿈이 스님의 인생을 바꿨다. 스님은 "어느 날 밤 꿈에 용수 보살이 나타나 '그대는 속히 남인도의 나그푸르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기이하다고 생각해 그곳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전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나그푸르는 암베드카르 박사가 인도불교 부흥을 천명하고 최초의 대규모 집단 개종식을 봉행했던 곳. 슈레이 스님은 이곳에서 당시 인도불교의 상황을 알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암베드카르 박사가 집단 개종한지 얼마 안 되 급사한 후 인도불교 부흥은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승려로서 인도불교 부흥을 반드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도 불교부흥 운동에 뛰어든 계기를 설명했다.



불가촉 천민들의 집단 개종식에서 전계사를 맡고 있는 사사이 슈레이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분슌 온라인

스님의 포교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공원에서 염불하는 스님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스님의 일심불란한 모습에 차츰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불가촉 천민들이었다.

스님은 카스트 제도라는 굴레로 절망에 빠진 불가촉천민들에게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스님은 "개종만으론 생활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보시금을 모아 학교나 병원을 세우고, 상위 카스트로부터 차별 받은 이들을 모아 조직적인 항의를 이어나갔다"며 불가촉 천민들과 개종한 불교도들을 위해 진행해온 활동들을 말했다.

또 힌두교도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불교도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투쟁도 16년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스님의 항소로 인도 최고재판소에서 재판도 시작됐다.

스님의 노력은 인도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스님은 지금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불가촉 천민들을 불교로 개종시켰다. 스님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인도의 최남단 타밀나두까지, 개종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계를 주기 위해 달려갔다. 이러한 스님의 활동은 항상 순탄치는 않았다. 위기의식을 느낀 힌두교 과격파 신도들에 의한 세 차례의 독살 시도도 있었다. 비자가 다 된지도 모르고 활동하던 중 불법체류로 체포 된 적도 있었다.

스님은 "불가촉 천민들은 노예로부터 불교도가 됐다. 나는 그들의 노예, 인도불교의 노예다"라며 "죽는 순간까지 '싸우는 불교'로서 불가촉 천민과 소수자인 불교도의 권리향상 등 인도 불교를 위해 일하다 죽겠노라"고 결의를 보였다.

日천태종, '에이잔 기숙사' 폐지



출가자를 모집 · 양성하던 일본 천태종의 에이잔 기숙사. 2005년부터 이어진 장기 휴원 끝에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출처=교토신문

출가 꿈꾸는 청년 인재 교육
'취업적 출가' 지원 증가하자
2005년부터 장기휴원 들어가
"역할 다해… 교육 포기 아냐"

불교와 인연이 없지만, 출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출가자로 양성하던 일본 천태종의 '에이잔 기숙사(叡山學寮)'가 폐지 됐다.

11월 15일 일본의 '교토신문'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했다. 폐지에 붙여 일본 천태종측은 "일정 역할을 다한 끝에 자연스럽게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5년 일본 천태종은 불교와 인연이 없지만 출가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공모, 지도하는 교육기관인 '에이잔 기숙사'를 개원했다. 2년제의 기숙사는 본산에서 교학과 수행을 배운 후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지원자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종교적인 신심과 인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당시 일본 천태종은 "승려의 세습화가 진행되면서 종단이 폐쇄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바람을 환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개원 첫해에는 전국의 지원자가 쇄도해 정원을 꽉 채우는 등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첫 기수의 수료자들도 낙오자 없이 출가해 모두 각자 수행을 거듭하거나, 말사 주지로 취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숙사가 개원된 시기와 일본의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지원자들 가운데 안정적인 취직처로써 출가를 희망하고 있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기숙사 공모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지원자는 있었으나 종단이 바라는 인재상과의 차이가 점점 커졌다. 결국 지난 2005년 교육방식과 지도방법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모집을 중단,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다.

일본 천태종은 종단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발족, 검토를 거듭한 끝에 올해 8월 하순 완전폐지로 결론을 매듭지었다.

운영위원회는 "경제 불황등 사회상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신앙에 대한 생각과 사상도 크게 변했다"며 더 이상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유효한 방법을 도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천태종 교학부장 모리타 겐신 스님은 "수료생들 가운데는 현재 천태종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중 하나로 꼽히는 12년간의 칩거수행(籠山行)을 희망하는 이는 물론, 각지의 말사나 지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에이잔 기숙사는 일정의 역할을 모두 다했다"며 "이번 폐지가 교육의 포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 연구·유적 재건 '박차'

불교 고고학 국제대회 열고
최신 발굴 · 연구 성과 공유
대규모 불교유산공원 완공도



인도 문화부는 '불교 고고학 국제 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연구들을 발표했다. 사진출처=더 힌두

인도에서 최근 불교를 재조명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인도의 유력언론지 '더 힌두'는 11월 16일 인도 문화부가 개최한 '불교 고고학 국제 학술대회'를 보도하며 중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에 불교문화유산공원 '붓다바남(Buddha-vanam)'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도 텔랑가나주의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불교 고고학 국제 학술대회'는 인도 문화고미술부 장관 슈리니바스 구드(Srinivas Goud)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이날 슈리니바스 장관은 "카스트, 종교, 차별이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고 있고, 인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중국 또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여전히 뒤쳐져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 풍부한 불교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텔랑가나에서 불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현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불교문화유산공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슈리니바스 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텔랑가나주를 흐르는 크리슈나 강 기슭, 붓다바남에 113ha에 걸친 불교유산공원이 건설 중이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텔랑가나 문화재 관리국의 디나카르 바부(Dinakar Babu)씨는 "여기 텔랑가나에 사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불교를 따랐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들을 탐색하고,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때보다 현대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고고학연구소는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명확히 고증하기 위해선 경전적 증거보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나에서 주목을 받은 발표는 고대 방글라데시 불교에 관한 연구였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약 70km 떨어진 와리 바테슈와르(Wari-Bateshwar)지역에서 불교 유적이 발견한 학자 수피 모스타피저르 라흐만(Sufi Mostafizur Rahman)은 해당 유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초기의 역사가들은 불교가 기원전 6세기에 방글라데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추측이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로 그보다 앞선 시기에 불교가 전파됐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와 시크교 어떻게 통할까

티베트문헌도서관, 불교 · 시크교 첫 공동 연구

세계종교인 불교와 인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시크교. 두 종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유사점을 찾은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11월 16일 인도의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와 '더 트리뷴'은 불교도와 시크교도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티베트문헌도서관(LTWA)은 시크교의 창시자 구루 나낙(Guru Nanak)의 탄생 550주년을 기념해 불교와 시크교 두 종교의 유사점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출간했다.

시크교는 15세기 인도서 창시된 종교로, 신은 하나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교다. 전 세계에 2700만 신자가 있으며 이중 83%가 인도에 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물인 〈두 스승과 하나의 메시지: 부처님과 구루 나낙〉는 전자도서로 출판 됐으며, 향후 인쇄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시크교도인 사르빈더 카우르 길(Savinder Kaur Gill)과 티베트 불교학자인 쏘남왕모(Sonam Wangmo)의 공저이며, 두 종교의 최초 공동 연구라는 데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논리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시크교의 경전에 대한 철학적 해설을 중심 연구로 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